

수입최고기와 유제품 수입의 완전개방에 대비하는 낙농가의 자세



조 장 환 / 신광목장
전남 나주시 봉황면 나우리 242

1995년도에는 봉황 조사료기계화영농단의 발족과 더불어 베일러, 옥수수 수확기 등 기본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옥수수 파종기, 레이키등 많은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조사료 생산장비 20여종과 약 30,000평의 사료포를 이용하고 있다.

전업낙농목장을 경영하면서 1992년에 김인기씨등 영광낙농회원 7분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목장은 사남매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시켰으므로 그렇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왕 경영하는 목장 열심히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목장은 전업규모(부부관리)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목장, 시설, 사양관리 등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1975년도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고향집 한켠에 송아지 4두를 사육한 것이 낙농의 시작이었다. 그때 1호 소인 '또순이'는 10산에 11마리 송아지를 낳아 목장의 틀을 세워 주었지만 나머지 3두는 파이로 플라σμα 등 질병으로 실패하였다.

당시 바켓 착유기, 간접냉각기, 경운기, 지게, 손수레등을 활용하

여 소규모 낙농을 하게 되었는데 밭 2,000평, 답리작 1,500평, 초지 800평, 산야초에 의한 사육이었다. 산을 개간하여 오차드그라스와 레드클로버 등을 심었고, 손작두로 썰어서 옥수수 엔실리지를 담그곤 하였다.

그후 1985년에 풀밭따라 현 사육장(나주시 봉황면 소재)으로 총 19두의 성우를 이끌고 이주했다. 소규모 착유실과 개방식 우사, 경운기에 의존한 형태였으며 트랙터는 임차사용하여 안정적인 옥수수 엔실리지 수급이 이룩되었으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수단 그라스 등의 급여로 야초 활용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었다.

1992년 1월에 80마력급 트랙터를 장만함으로써 조사료 생산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사이 조사료 이용은 청에 이용에서 엔실리지 사양으로 변동되었으며 우사청

소 등도 생력화할 수 있었다.

1995년도에는 봉황 조사료기계화영농단의 발족과 더불어 베일러, 옥수수 수확기 등 기본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옥수수 파종기, 레이키등 많은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조사료 생산장비 20여종과 약 30,000평의 사료포를 이용하고 있다. 작부체계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옥수수 2모작이며 옥수수는 엔실리지로, 라이그라스는 건초내지 헤일리지로 담그로 있으며, 사일로는 3기로 300t 규모이다.

우균을 살펴보면 경산우 42두 육성우 및 송아지 52두 비육우 9두 등 총 103두이며, 일일 납유량 1t, 유지율 3.8%~4.0%, 세균수는 상시로 1등급, 체세포수는 가끔 2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구입 배합사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하며 협동조합에 생산한 건식 T.M.R을 약간 구입한다. 우군이 상용하는 우사면적은 약450평이며 창고 60평이 있다. 우사는 깔짚축적식이며 재료는 톱밥으로 공장과 계약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20년 넘게 낙농을 하면서 터득한 목장경영방식을 다른 낙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냉장 애플정액 이래 인공수정을 해 왔다는 것이며 송아지 구입시에도 인공수정시킨 자손인지를 확인 구매한다.

둘째는 자급조사료를 꼭 확보하고 특히 담근먹이는 해를 거르지 않고 비축하여 먹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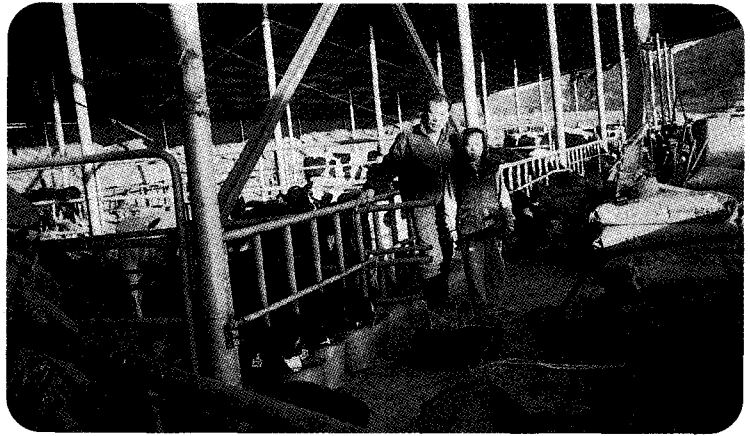
셋째는 성우를 사지 않으며 후보축을 항상 육성한다.

넷째는 육성우와 착유우에게 조사료를 충분히 먹여 제4위 전위등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물론 시행착오도 적지 않으며, 그중에는 반복 되풀이한 내용도 있다.

첫째는 동일정액의 파다사용으로 불량개체 발생시 초산차에 반수 이상을 도태시킨 경험도 있다.

둘째는 수태불량으로 도태시킨



소 중에는 내장 일부에 기생충 감염이 심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는 착유시설의 노후로 유방염 개체발생이 현저하기도 했으며 4산이후의 소들을 세균등급에서 좋은 급수를 받고자 유방염 발생시 즉각 도태시켰다.

최고기 수입 완전자유화 및 유제품 수입의 붓물이 터질 것을 대비한 낙농가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 토양에 뿌리내린 자급 조사료 강조형 생산체계이다.

둘째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유전자 조작식품

논쟁 및 성장 호르몬 등의 사용여부 논쟁, 동물성 사료에서 오는 안전성

(예: 영국에서의 광우병)등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셋째는 생산성 높은 낙농이다. 잘 개량된 젖소에게 양질의 조사료와 적절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높은 유량과 고유질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넷째는 낙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회 및 유업체의 양심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는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낙농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낙농으로 변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㉞)

(연락처 : 0613-331-4187)



한국축산발달사 출판

한국축산발달사 편찬위원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공동으로 한국축산발달사를 발간하여 지난 2월 19일 하오 6시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관련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축산발달사 출판기념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13명의 편찬위원과 44명의 집필위원이 지난 2년여 동안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축산업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총 1,600여 쪽의 한국축산발달사 800여권을 제작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다.